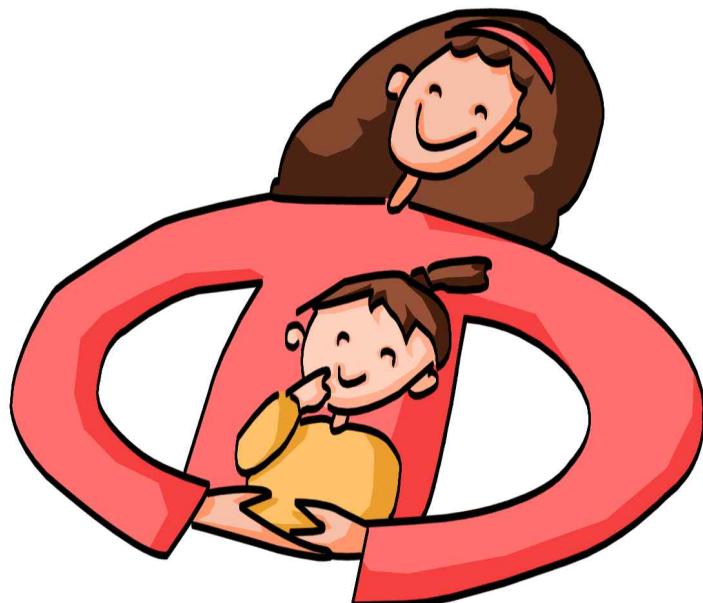


초보 엄마를 위한 인문강좌

“엄마, 돌봄의 지혜를 만나다!”

〈부제: 있는 그대로! 자신과 아기를 이해하는 엄마 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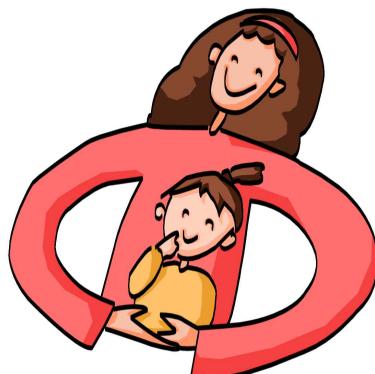
- <보듬다듬> 엄마인문강좌

초보 엄마를 위한 인문 강좌

“엄마, 돌봄의 지혜를 만나다!”

〈부제: 있는 그대로! 자신과 아기를 이해하는 엄마 되기!〉

〈보듬다듬〉 엄마인문 강좌



아이를 키우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소비적인 육아에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육아의 대열에 서고 싶은 엄마들 다 모여라~

늘 잘하고 있는건지... 불안한 엄마에서
좇대 있는 엄마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엄마들 다 모여라~

출산을 기다리는 엄마, 젖먹이 아기를 키우며..
좌충우돌, 고군분투하는 엄마
자신을 격려하고 서로를 북돋으며 엄마의 지혜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기를 희망하는
엄마들 다 모여라~

- 주 최 : (사)탁틴내일 탁틴맘, 서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주 관 : 탁틴맘, 보듬다듬
- 후 원 : 서대문구
- 일 시 : 2011년 9월 16일~10월 18일
- 장 소 : 서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대 상 : 예비엄마 및 아기엄마 (0세에서 5세까지)

● 강좌 내용

회차	강의 주제	강사	날짜
1	입학식 및 첫 강의 아이의 미래를 보는 엄마의 지혜 - 육아를 위한 부모 철학	고병현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9월 16일(금) 오후2시~4시
2	‘通’ 하는 부부 - 부부 대화법	김희경 (가족상담사)	9월 24일(토) 오후1시~2시30분
3	엄마가 전해주는 그림책 세상	김주희 (‘현명한 엄마의 대화습관’ 저자)	9월 27일(화) 오후2시~4시
4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엄마 지혜 - 아이 심리발달 이해	이현경 (동남보건대 유아교육과 교수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아기발달심리학’ 저자)	10월 7일(금) 오후2시~4시
5	숲, 정원..자연과 친구 되는 돌봄의 지혜 (숲에서 진행)	최현수 (숲속자연학교 운영)	10월 11일(화) 오전11시~12시
6	놀 줄 아는 엄마의 지혜 - “아이는 놀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다” 마지막 강의 및 수료식	편해운 (‘아기는 놀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다’ 저자)	10월 18일(화) 오후2시~4시

아이의 미래를 보는 엄마의 지혜

- 교육은 ‘만남’을 통해서 그 ‘희망’을 꽂피운다 -

(고병현,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아,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기 위해 자리에 누워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는지.

-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있는 어느 성공회 주교의 묘비명 -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배운 학생이 그러면 되나!”, 혹은 “배운 학생이 왜 그래?” 등의 말을 심심치 않게 듣고, 하고 하던 적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어느 정도는 살아 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교육’이라는 것을 받으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언행에서 뭔가 분명 달라져도 좋은 방향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신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에 대해서 별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육받는 것이 본업인 ‘학생’이 사회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생’인 자녀에게서 바라는 것이라고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오로지 사고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소위 ‘명문’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교육’이라는 것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좀 더 근본적으로는 ‘교육’이라는 것에 무엇인지 답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요즘처럼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전문지식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어야 하는지 …… 만약 전자라면, 교육은 곧 전문교육을 뜻하는 말이 되고, 그래서 고소득을 보장하는 직장을 얻지 못한 사

람들은 ‘헛공부’ 한 것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만약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일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교육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고, 또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간디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 사람들은 여전히 교육을 ‘글자 익히기’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어린이에게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배운 것이 없어서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상식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그리고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농부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 경우, 농부는 소위 ‘도덕 법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또 실제로 실생활에서 그 법칙을 잘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까막눈’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농부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자, 그러면, 이 때 사람들이 말하는 교육은 그 농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 농부의 ‘까막눈’을 깨우쳐주어서 그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좀 더 크게 만들어주려는 것일까, 아니면, 그를 소위 ‘계몽’시켜서 현재 자신이 얼마나 열악한 생활조건에서 살고 있는가를 알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농부에게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식의 그런 교육은 사실 별 쓸모가 없다. 하지만 분명 이치가 이러한데도, 사람들은 서구사상의 큰 물결에 휩쓸려서 그 장단점도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채, 글 깨우치는 교육을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한다는 결론에 성급하게 도달하고 말았다.¹⁾

무엇이 더 나은, 더 좋은 삶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더 나은 삶이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데 교육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 언제나 문제 접근을 위한 관점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매우 식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떤 문제든 그 문제에 접근하기에 앞서 관점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대안교육을 사례로 이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대안교육을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에 대한 대안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령 기존 교육제도나 교육법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교육이고, 또 교육이 추구하는, 혹은 교육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가치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는 것도 대안교육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안교육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춰 하는 말인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에 대한 대안인지 제도에 대한 대안인지, 아니면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에 있어서의 대안인지에 따라 그 다음 이야기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의 것과는 다른 대안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안교육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된 대상의 성격에 따라서 같은 교육 목적일지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채택하는 내용과 방법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안학교는 ‘대안적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즉, 기존의 것과는 다른 교육을 해야겠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 혹은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안학교를 세우는 사람들이 대안학교의 설립을 ‘과정’이나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생

1) 간디(Mahatma Gandhi)(2006). 「간디, 나의 교육철학(*My Views on Education*)」(고병현 역). 서울: 문예출판사, 17-18쪽에서 인용.

각하면, 즉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수단’의 적합성이나 합리성, 혹은 필요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이 ‘교육은 만남이다’라는 주제를 접근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교육이 만남’이어야 하는지 어쩐지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만남’이 교육의 목표라는 말인지, 아니면 ‘만남’을 통해서만 교육이 목표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인 경우에는 ‘만남’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교육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어떤 만남인가, 무엇의 만남인가 중요하게 됩니다. 저는 ‘교육은 만남이다’라는 명제를 후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교육은 서로 마주보고서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뒤’에서 일어납니다

세계는 지금 세계화, 지식기반사회, 정보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는 3차산업화로 가고 있고, 인구적으로는 고령사회라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칠게 보더라도 큼직큼직한 다섯, 여섯 가지의 큰 사회 변화 흐름이 있는데, 이런 사회 변화에서 교육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그러한 가치가 어떻게 꽂 피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나름의 답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함께 사는 삶,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쳐야 한다는 반성이 교육계의 한 쪽에서 자기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생각에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소위 ‘현실주의자들’로부터 매우 강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전을 받는다고 생각해봅시다. 경제적으로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자녀들한테는 오히려 경쟁력을 키워줘야 그 아이들이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더불어 사는 삶, 함께 하는 삶이 물론 아름답지만, 그리고 당신들의 목적은 선하지만 결국 당신들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당신들의 알량한 ‘양심’ 때문에 결국 그 아이들만 가난의 대물림으로 끝나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 등등.

여러분이 신념으로 고백하고 있는, 더불어 사는 삶, 자발적 가난, 오래된 미래, 작은 것이 아름답다, 검소한 삶 등과 같은 대안적인 가치들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어떤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말하는 사람 스스로가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이러저러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당사자는 막상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서 남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당위성’만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위선이지요.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아주 심각성을 느낍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목사나 신부님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는 대로 하면 큰 일 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사나 교수들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썰렁한 유머 한 가지 더 해봅시다. 물이 영어로 뭘까요? ‘water워터’? 아닙니다. ‘self셀프’입니다. 어느 음식점이든 가보세요, ‘물은 셀프입니다’라고 적혀있어요. 왜 이런 썰렁한 유머를 하는가 하면 뭔가 화법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은 만남이다’와 ‘물은 셀프’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남이 다 교육인가요? 아니겠지요. 어떤 두 사람의 만남이 사랑 때문일 수도 있고 외나무다리에서의 만남처럼 원수가 만나 결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만남이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한 강연을 요청받고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냥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면 대답하기가 너무 막연하니까 어느 한 가지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의 정체성

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명제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교육은 만남이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과 무엇의 만남이냐를 따지고 들다보면 교육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아무튼 ‘교육은 만남이다’라고 할 때 무엇과 무엇의 만남일 텐데, 그냥 물리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닐 테고 …… 그렇다고 그냥 만나는 건 또 아닐 텐데 …… 도대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 ‘교육은 만남이다’는 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은 만남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봅시다. 길거리로 나가서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교육을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 정도로만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이상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마치 모든 사람이 ‘교육은 지식(특히 도구적 지식) 전달’이라는 생각에 동의한 것처럼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 대안교육 진영에서도 부작용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안교육하면 지식은 제쳐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인성 교육과 인지 교육이 두 마리 토끼 여야 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비율, 비중이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교육하는 이유, 혹은 목표를 달성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들 중에서 어느 길이 가장 ‘옳은가’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지 않고는 그 장단점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풍물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왜 꼭 풍물을 가르쳐야 되지요? 우리 것이니까요? ‘우리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정치적 이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교육적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풍물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는 설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칠 때,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적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적 이유’는 좀 더 큰 차원에서,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 들어맞아야 하구요.

지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은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의 성격이 지식의 내용과 성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적 가치관은 자본의 논리가 녹아난 지식을 선별, 가르칩니다. 생태주의적 가치관에 초점을 맞춘 교육은 땅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핵심적 교육내용으로 삼습니다. 즉, ‘무엇을 왜 가르치는가’에 대한 자기 나름의 답이 있어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 방법론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풍물을 가르쳐야 하는지, 혹은 지식의 비중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내용의 지식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답을 찾으려면 ‘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의 교육관을 세워야 합니다.

■ 교육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교육이란 삶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

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잘 사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음	나쁨
성공	성공한 좋은 교육	성공한 나쁜 교육
실패	실패한 좋은 교육	실패한 나쁜 교육

어떤 교육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는 서로의 가치관에 관계없이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교육인가, 나쁜 교육인가 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위의 4가지 범주 중에서 어느 칸에 집어넣을 것인가는 결국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방금 교육을 ‘삶을 잘 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이것 역시 가치판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 물질이 풍요한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한국의 주류 사회의 가치관과 같은 류(類)의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것과는 다른, 뭔가 대안적인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편리한 삶,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만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대안적인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구요? 그렇다면 그 대안적인 삶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찾는 대안적인 삶은 대안적인 가치에 기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대안이라는 말은 가치라는 말에 대한 대안일 수도 있고 제도에 대한 대안 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교육은 만남이다’라는 명제로 다시 돌아갑시다. ‘교육은 만남이다’라고 할 때, 교육은 결국 ‘삶과 삶의 만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물리적’ 만남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사는 삶과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뒤에서 ‘느끼면서’ 닮아가려고 하는, 배우는 사람의 삶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삶과 삶이 만날 때 감동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비로소 교육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한 때 교육붕괴니 교실붕괴니 하는 말들이 크게 유행하였고, 지금도 그러한 ‘판단’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합니다. 물론 그런 용어로 밖에는 표현 할 수 없는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이 그 정도로 무력해졌다면, 교육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변화의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삶의 결을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는 말입니다. 아니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조차도 힘들고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할 때 글을 찾고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까? 헬렌 니어링과 스콧 니어링의 삶을 보면서, 간디나 마더테레사의 삶을 보면서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과의 직, 간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 결과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생기면 그것이 곧 ‘교육’ 아닙니까? 왜 여러분은 힘이 들 때 이러저러한 교육을 받고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으면서 왜 여러분들이 하는 교육에서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왜 교육이 자꾸만 실종 되었다고 하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으로 감동 받고 변화하는가’에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삶과 만나서 받는 감동을 우리 교육현장에서 만들어

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스콧 니어링은 지금의 자기가 있기까지 영향을 준 4명의 교사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톨스토이가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기가 한 번도 보지 않은 간디를 자기의 제자로 삼고, 간디는 톨스토이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으면서 남아프리카에 톨스토이 농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톨스토이는 ‘시민의 불복종’과 월든에서의 생활로 유명한 소로우 영향을 받습니다. 또 흑인 인권 목사 마틴 루터 킹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간디를 자신의 스승으로 삼지요. 이렇듯 만남이 또 다른 만남을 만들어가면서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한다는 것이 재미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교육은 삶과 삶의 만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교육은 ‘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디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미국사람들한테 한 말씀을 해달라고 합니다. 방문 기간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던 간디가 기차에 오르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 삶이 메시지이다’라고요. 교육은 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마주보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만남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사람의 삶이 내 삶과 공명(共鳴)할 때 교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삶을 앞에서 실제로 살아 보이는 것, 이것이 삶을 위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우리 교육의 실패는 지식 전달의 실패가 아니라 지식 자체, 암 자체의 실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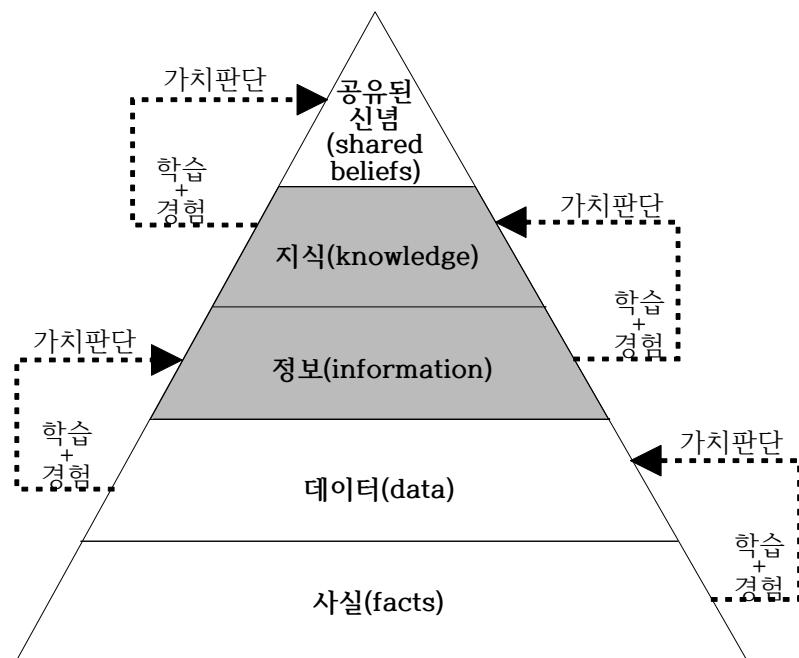
이처럼 삶이 또 다른 삶을 만날 때 사회는 변혁됩니다. 그러면 늘 교사와 학생이 ‘만나고’ 있는데, 교육이 붕괴되고 교실이 붕괴되었다는 것은 무슨 소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삶과 삶의 만남이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머리로 배운 것을 가슴에서 숙성시켜 몸으로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머리로 배운 것을 바로 입으로 내뱉는다든지, 가슴에서 숙성시키는 단계를 건너뛰고 몸으로 실천한다든지 할 때에는 결코 가르치고 싶은 삶이 학생들의 삶에서 재생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교사의 삶에서 목격되는 ‘비판적 사회 읽기’와 ‘비판적 삶 살기’의 괴리는 결국 학생들의 삶 또한 교사가 느끼는 현대 문명의 찌꺼기에 오염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문명은 인류의 창조적 지식 생산과 그렇게 생산된 지식의 다음세대로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달, 계승 과정을 통해서 이룩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그 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런데 현대문명이 위기라고 합니다. 이는 인류가 생산한 지식이 인간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혹은 집단),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선용(善用)되기보다는 악용(惡用)되어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식’을 “우리를 둘러싼 혼돈에 정신적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출현하는 것”(파커 파머, 2000a: 24)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커 파머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 짓는다는 바로 그 지식이 오히려 인간 세계를 자연 세계보다 훨씬 더 비인간적이고 훨씬 더 야만적인 곳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회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현대 지식의 실패는 일차적으로는 윤리의 실패 즉 아는 것을 적용하는 문제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식의 좀 더 깊은 원천과 열정을 인정하고 추구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식이 창조하는 관계들-자기 자신, 이웃, 전체 유·무생물 세계와의 관계-에 사랑이 거하도록 하지 못한, 암 자체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의 좀 더 깊은 원천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파커 파머는 우리가 ‘지식’을 가치중립적 재료, 즉 ‘사실’에서 시작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지식의 기원 문제는 무시해왔는데,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 중요한 것은 ‘가치중립적 사실’을 어떻게 사용하고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이지, 우리의 지식이 어디서 비롯하는가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관(知識觀)에 기초한 교육은 획득한 지식의 사용에 대해서는 그저 가끔씩 하는 ‘정신교육’ 혹은 ‘가치관교육’을 통해서 기술자나 기업가, 정치가 등과 같이 ‘사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소위 윤리나 도덕규범으로 둘러싸는 방식으로 그들의 열정이나 목적을 제어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식’이라는 것은 자체의 도덕(morality)을 갖고 있다는 사실, 즉 가치중립적이 아니라 가치내재적(價值內在的)이기 때문에, 교사가 수행하는 ‘가르치는 일’에는 단순히 교육하는 사람 자신이 ‘아는 것’을 그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가정되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달되는 지식과 함께 자신의 ‘앎’의 인식체계와 특성도 함께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그림은 지식과 가치, 인식체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 1: 지식 생성 과정>

우리가 흔히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소위 ‘사실들(facts)’의 집적과 분류 과정을 거쳐서 생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실들이 그대로 다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사실들’을 가지고도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들’이 ‘데이터’로 전환되는 과정인, ‘사실들’에 대한 선택.분석.해석 작업은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받아 온 교육과 경험, 그리고 의식하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그 사람 인식체계에 내재하고 있는 가치체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정보’로, ‘정보’가 ‘지식’으로 전환되는 것도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지식’은 결코 가치중립적일 수 없으며, 정보와 지식의 생산 과정에서 그 과정을 주도하는 사람의 인식체계와 가치체계의 특성이 그 지식 안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렇게 지식에 내재된 가치는 그 지식을 습득한 사람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행동과 태도, 품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다른 생명체, 세계, 그리고 자연(다른 생명체를 포함한)과 관계 맺는 방식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앞에서 인용한 파커

팔머의 “현대 지식의 실패는 일차적으로는 윤리의 실패 즉 아는 것을 적용하는 문제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지식의 좀 더 깊은 원천과 열정을 인정하고 추구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식이 창조하는 관계들-자기 자신, 이웃, 전체 유·무생물 세계와의 관계-에 사랑이 거하도록 하지 못한, 암 자체의 실패”라는 말은 결국 지식에 내재한 ‘가치의 실패’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붕괴니 교실붕괴니 하는 말들로 현재의 교육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에 앞서, 우리 교육하는 이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암 자체의 실패’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감동과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검토해볼 일입니다.

■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실패는 우리 아이들이 꿈 꿀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삶과 삶의 만남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삶의 내용이 풍요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의 삶이 대체로 평이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해서 그리 나을 것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좀 더 위대한 영혼의 스승을 만날 수 있게 해주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육이 ‘뒤’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앞 선 스승의 삶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기르려는 의지를 강고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지요? 저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꿈꿀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고수비(眼高手卑)’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눈(眼)은 높은데 손(手)이 낮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눈(眼)’은 ‘꿈’이나 ‘이상(理想)’을 의미하며, ‘손(手)’은 ‘재능’이나 ‘실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고수비(眼高手卑)’는 꿈과 이상은 높고 고결한 반면, 그 사람의 재능과 실력은 그 꿈과 이상을 이루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가 ‘위인(偉人)’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눈’과 ‘손’ 사이의 간격이 그리 크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간극’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차르트에 관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는 살리에리라는 또 다른 음악의 거장이 등장합니다. 이 영화에서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천재적 음악성을 시기해서 모차르트를 독살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인물입니다. 한편으로는 당시 어린 모차르트의 천재적 음악성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음악가로서, 어린 모차르트가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운 사람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영화 속에서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음악적 재능을 따라잡지 못하는 자신의 ‘손’에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 괴로움을 모차르트를 독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눈과 손의 간극’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혹시 영화 속의 살리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자포자기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 “꿈 깨!”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허황된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때로는 뭘가 미래의 꿈에 대해서, 혹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꿈’을 깨버리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나요? 우리가 스스로 ‘꿈’을 깨버리면 ‘현실적’이 되는 건가요? ‘눈’과 ‘손’의 사이, 이상과 현실의 간극 …… . 사람들은 자신의 꿈이 너무 ‘유토피아적’, 혹은 ‘이상적’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상이나 꿈이 전제되지 않은 ‘현실적’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상과 꿈이 함께 하지 않는 ‘현실적’ 삶은 현실에 매몰된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상도 꿈도 없이 ‘무리 속에 안주(安住)’하면서 현실에 매몰되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책임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삶이란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발짝씩이라도 꾸준하게 노력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바로 ‘꿈’이요, ‘이상’입니다. 미국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모든 인간은 피부색깔에 관계없이 서로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다가 암살당했습니다. 킹 목사가 암살당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그가 암살당하기 열흘 전에 미국 수도 한복판에서 했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라는 그 유명한 연설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은 흑인 인권운동 목사의 비폭력주의 평화운동이 미국사회에 미칠 파괴력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흑인과 백인 할 것 없이 30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이 함께 모여 킹 목사의 연설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킹 목사의 ‘꿈’이 모든 미국 시민의 ‘꿈’이 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킹 목사를 암살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킹 목사이지만 사실 그들이 죽이고 싶었던 것은 킹 목사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은 결코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킹 목사가 암살된 직후, 만화평론가 빌 몰딘은 간디가 자기 뜻자리 위에서 킹 목사를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해 다정하게 환영하는 태도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암살자들의 희한한 점은 말이오, 킹 박사, 그들이 당신을 죽였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오.

이렇듯 ‘꿈’은 다른 사람이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꿈을 갖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의 육체적 강건함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도 모든 인간은 총칼 앞에 무력하기 그지없습니다. 킹 목사뿐만 아니라 간디도, 톨스토이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매우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총칼을 쥐고 세상을 호령했던 당시의 지배자들과 지배계급,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무력하게 만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매사에 참으로 당당합니다. ‘꿈’과 ‘이상’ 없이 막 살면 오히려 자유롭고 편할 것 같은데 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자유(自由)’란 풀어 쓰면 ‘자기(自己) 이유(理由)’를 가진다는 뜻이라고 성공회대학교 신영복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무엇을 하든 ‘자기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자유인(自由人)’이라는 말인데, ‘한번 뿐인 삶’을 걸고 실현하고픈 ‘꿈’과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참 자유인’인 것이겠지요.

결론적으로 ‘교육은 만남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과 삶의 만남이어야 하고, 동시에 앞 선 사람의 ‘삶’은 ‘뒤’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과 ‘이상’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갖게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육은 ‘만남’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고 ‘만남’을 통한 교육은 결국 ‘삶을 위한 교육’인 동시에, ‘자유함을 위한 교육’이기도 한 것입니다.

■ 교육에서의 ‘희망’은 ‘선언’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교육이 ‘희망’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 생각해봅시다. 암울한 현실에서 희망을 느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계기로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는지를 생각해보세

요. 우리는 원칙이 통하지 않고 행복이나 사랑, 성공 등과 같은 삶의 핵심적인 개념들이 오염된 사회에서도 아름다운 원칙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볼 때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천박한 자본주의가 인간의 깊은 정체성을 광폭하게 후려칠 때일지라도 권정생 선생님이나 김수환 초기경,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의 삶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그런 분들의 말씀에 앞서 그 분들의 삶이 먼저 있었기에 그 말씀이나 가르침, 혹은 그 분들의 책이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가르침이나 글이 아니라 그 분들의 ‘존재’ 자체가 ‘희망’의 씨앗임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집니다. 교육에서의 ‘희망’은 교육현장에서의 교육내용이나 ‘교육 희망 선언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느낄 때는 오로지 교사나 부모의 삶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뿐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부모가 바로 교육에서의 ‘희망’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지금의 현실 조건에서 남들과 달리, 사회가 깔아놓은 ‘문맥(文脈)’에 맞춰 자녀의, 학생들의,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찰을 통해서 세운 삶의 원칙에 따라 ‘다르게’ 사는 당신의 존재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햇빛보다 강한 ‘희망’입니다.

교육에서 ‘희망’을 찾고자 노심초사 하는 당신, 그 ‘희망’은 바로 당신 ‘안’에, 당신의 삶 속에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이 자신에게 ‘희망적’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입니다. 자신의 삶 자체가 자신에게 ‘희망’일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자신의 ‘희망 경험’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으로 꽂피우게 됩니다. 미친 경쟁의 시대에, 성찰하면서 ‘남다르게’ 살아가는 당신이 바로 ‘희망’이라는 말입니다.